



중국 아이치이의 유료서비스 수익, 처음으로 광고수익 초과

북경사무소

■ 현황

- 최근 중국에서 콘텐츠 유료서비스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그런 가운데 아이치이(爱奇艺, iqiyi)가 얼마 전 발표한 2018년 제3분기 재무제표에 따르면 유료회원들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은 29억 위안으로 처음으로 광고수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즉, 아이치이는 현재 광고가 아닌 유료콘텐츠 판매로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음
- 그동안 중국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기업들의 가장 큰 수익원은 광고였으며, 이용자들이 무료로 영상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영상시청 이전 약 1분가량을 의무적으로 광고를 시청해야 했음. 하지만 유료 회원의 경우 광고를 시청하지 않아도 됨
- 결국 이는 기존 “광고시청+무료콘텐츠 이용”이라는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이 “우수 콘텐츠+유료 시청”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주요 내용

- 유료콘텐츠 판매수익이 광고수익을 넘어선 일은 중국 내에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생겨난 후 처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중국판 넷플릭스라 불리는 아이치이 관계자는 앞으로 아이치이의 유료콘텐츠 판매수익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음
- 이는 중국에서 광고수익이 더 이상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들의 최대 수익원이 아님을 의미하며, 향후 중국 주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들은 우수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하여 더욱 많은 유료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할 것으로 전망됨
- 사실 아이치이를 비롯한 주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기업의 최근 발전과 성취는 중국 저작권 보호환경의 개선과 분리될 수 없음
- 약 10년 전 중국에는 100개 이상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들이 존재했지만,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부재로 인하여 해적판 등 권리침해 동영상들이 상당수 존재했으며, 이로 인한 한류콘텐츠 침해도 상당히 심각했음
-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정부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검망행동(剑网行动) 등 각종 캠페인과 집중단속 등을 펼치는 등 저작권 침해에 기민하게 대응했고, 그 결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산업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의식이 빠르게 개선되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남. 또한 그 때부터 일부 대형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들이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저작권을 확보하는 관행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아가 콘텐츠 자체 제작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산업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함
- 2013년부터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산업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영상콘텐츠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됨에 따라 영상콘텐츠의 저작권 비용이 급상승하게 되었다는 점임. 나아가 자신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중시하게 됨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산업이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한 우수한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베이징대학에서 문화산업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네티즌의 유료 소비가 증가하는 근본원인으로 '국민 소득 증가', '핀테크 산업의 발전 등 간편한 이동지불수단의 보급', '질 좋은 콘텐츠 제작' 등 3개 요소를 꼽음
- 또한 "앞으로 문화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 위하여 중국인의 소비지출은 더욱 많아질 것이며, 유료회원의 숫자 또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함

■ 평가

-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들이 좋은 콘텐츠를 확보하거나 제작하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해 온 결과 현재 중국의 콘텐츠 제작 수준은 크게 제고됨. 향후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여부는 콘텐츠의 '질'에 달려 있으며, 우수한 품질의 콘텐츠가 중국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전망이다
- 중국의 유료콘텐츠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지만, 최근 중국정부가 해외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중국정부의 정책기조와 규제정책에 사전조사 및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짐

■ 출처

- 국가판권국망(国家版权局网)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389189.html>